'오늘만큼은 나도 가수다'

지난 9일 전주완산체육공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 '제7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열린 가운데, 김양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회장과 가요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 김종천씨 '영예'
최우수상 - 진병기씨 차지
우수상 - 김순아 · 정영숙씨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가 주최하는 노인의 날 기념 '제7회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15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전주완산체육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재능 개발 등을 위해 열렸다.

노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위풍당당 전국실버가요제는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김양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회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이사장, 김정태 대한가수협회 전북회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대상을 수상받은 김종천(사진 왼쪽부터 세번째)씨와 진병기(사진 왼쪽)씨.

이날 실버가요제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개나리의 품바공연, 김복순 · 황정민 등 무용, 아랑고고장구, 가수 이수정 · 송희숙 · 구재영 · 김민주 · 정순임 등의 무대는 이날 행사의 재미를 더했다.

이번 실버가요제 대상의 영광은 김종천(진안)씨에게로 돌아갔다. 진병기(함평)씨는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순아(광주광역시)씨와 정영숙(전주)씨는 우수상을 수상받았고, 한은섭(광주광역시)씨와 공성용(전주)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다.

홍만현(익산) · 서재승(전주)씨는 장려상을, 전영자(정읍) · 이현례(전주)씨는 인기상을 받았다.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정동수 본 단체 이사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백현규 백송회관 대표가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가수 송희숙씨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진문댁 본 단체 이사가 전주시장 표창장을, 가수 김민주씨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김양옥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통해 즐거운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금석 이사장은 "풍요로운 계절에 노인들의 사회 참여는 물론, 재능을 개발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로 장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축사를 하고 있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주요 입상자를 발표하고 있는 김양옥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회장.

영예의 대상 수상자으로 선정된 김종천씨.

최우수상 수상자으로 선정된 진병기씨.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로 표창을 수여받은 정동수씨(사진 왼쪽).

무대 위에 오른 가요제 참가자 김순아씨. 김씨는 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사회를 맡은 강정원(사진 왼쪽)과 구재영씨.

가요제 축하무대에 올라 흥을 돋구고 있는 아랑고고장구.

초대가수 김민주씨의 축하무대.

축하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가수 이수정씨.